

# 건축사 Alejandro Aravena와 그의 사회적 건축

Architect Alejandro Aravena and his social construction

글. 이지현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에 소개할 건축사는 2016년도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칠레의 건축사 Alejandro Aravena이다. 이번의 수상과 그의 건축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그는 건축물의 설계자 그 이상을 넘어선 그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건축사의 사명의식과 역할에 대하여, 건축사는 단순히 건축주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만들어 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된 예산 및 자원 안에서 잠정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과 함께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건축사는 자신이 답하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 서민층을 위한 주거 공급 문제,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실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정신 아래 건축 스튜디오 ELEMENTAL을 설립하여 여러 공공 프로젝트와 개인적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그 중 하나는 “반쪽짜리 공공 지원 주택”(Social Housing) 프로젝트로써 이는 실제 남아메리카 경제 체제 아래에 한정된 자원과 상황 아래서 도시 주민들의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멕시코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싼 집을 짓는데는 약 \$30,000가 들고 이는 대부분의 서



민중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도시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서 땅 값을 낮추고 집의 연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상황은 2030년까지는 세계 50억의 인구 중에 20억의 인구가 삶의 질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20,000로 기반 시설을 포함한 집의 반쪽을 먼저 짓고 반쪽은 비워져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연면적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ravena는 우리가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일단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미래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반쪽 집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 1) 사이트의 위치는 도시 중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땅의 가치를 추후에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 2)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공 지원 주택으로써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개별적 가족의 집들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전략적으로 반쪽을 먼저 지을 것이고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파티션 구조 및 방화벽, 욕실, 부엌, 계단, 지붕 등은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들의 여유에 따라서 70~80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 3) 사회적 동이가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을 적절히 분리/연결 배치하고 각각의 공동체의 유닛은 25 가족 정도로 제한하여 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4) 처음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부동산 모델을 제안해야 한다.
- 5) 서민층의 전형적인 life style을 반영해야 한다. 한 방의 크기는 9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4개의 방이 있어야 한다. 한 유닛의 면적은 72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공공주택이 설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배관을 앞쪽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화장실은 집의 앞쪽으로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의 크기는 샤워 대신 욕조와 세탁기를 구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 주차 공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4 군데 다른 사이트에 지어진 공공 주택은 장기적으로 각각의 가정의 상황에 맞게 확장(incremental) 가능한 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ELEMENTAL은 자신들이 설계한 설계도서를 누구나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반쪽 집” 부동산 모델이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업자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ELEMENTAL은 설계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실례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ELEMENTAL은 설립 당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역설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도시적 불평등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설계 행위를 할 것, 둘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적 도약을 위하여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직시하고 같은 경쟁 조건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셋째,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적 프로젝트의 의미를 넘어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모델을 만들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설립 원칙에 보여지는 “사회적 평등의 실현”, “모든 사람들에게 살만한 주거조건 공급하기”라는 모토(Motto)가 극도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지극히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앓고 있고, 오히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또한 남아메리카의 현지의 어느 정도의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구조 만들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Alejandro Aravena의 건축사로서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실천하려고 한 업적은 프리츠커 상 뿐 아니라 그가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감독으로 임명되는데 역할을 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2016의 Opening Hall에서 이전 비엔날레의 철 폐기물 90톤으로 천장을 장식했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의 마감재와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특별한 미학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건축 철학, 즉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그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어떤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그의 자세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었다.